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2. 16

전남농업정보

22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배추, 무 수급 및 가격전망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쌀, 감자, 오이, 풋고추, 방울토마토, 배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5.1월, 농식품 수출 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곡성 쌀기 수출 길 열었다
쌀 가공식품 수출 크게 늘린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수량 많고 쌀국수 만들기 좋은 전용 벼품종 나왔다
월동기 이후 마늘·양파 관리 기술

정책동향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사업신청 안내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신청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농산물 수급 동향(전남도)

- 배추·무 수급 및 가격전망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29원/ℓ, 고추장(대상) 1,028원/100g, 김치(대상) 6,794원/kg, 두부(풀무원) 1,347원/100g
 - 전년대비 간장 1.2% 상승, 고추장 1.6% 하락, 김치 1.6% 상승, 두부 15.7% 상승
- ▶ 식량작물 : 쌀, 감자
 - 쌀(41,400원/20kg) : 수입쌀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산 가격이 내림세에 거래(전년보다 하락)
 - 감자(29,600원/20kg) : 가공품 물량 확보경쟁으로 오름세에 거래(전년보다 상승)
- ▶ 과 채 류 : 오이, 풋고추, 방울토마토
 - 오이(65,000원/15kg) : 설을 앞두고 요식업소 등의 매기가 둔화, 높은 가격대 형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내림세 형성(전년보다 하락)

- 풋고추(115,000원/10kg) :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전년보다 상승)
- 방울토마토(17,400원/5kg) : 사과, 배 등 제수용 과일과 딸기 등 제철 과일 소비가 집중되면서 내림세 형성(전년보다 하락)

▶ 과 일 : 배

- 배(36,400원/15kg) : 제수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14년산 작황호조로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되어 보합세 전망(전년보다 하락)

▶ 축 산 물 : 돼지고기

- 돼지고기(1,877원/100g) : 제수용품 마련 등으로 가격상승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15. 1월, 농식품 수출 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 ▶ 곡성 딸기 “수출 길 열었다”
- ▶ 태국, 우리 딸기에 푹 빠졌다!
- ▶ 쌀 가공식품 수출 크게 늘린다
- ▶ 농협 “올 농식품 수출 목표 4500억”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수량 많고 쌀국수 만들기 좋은 전용 벼품종 나왔다
 - 수량 10a당 708kg 초다수성..., 2016년 농가 보급 계획
- ▶ 월동기 이후 마늘·양파 관리 기술
 - 서릿발 피해 예방, 잡초제거, 웃거름 등 적기 관리 필요

- ▶ **몸에 좋은 잡곡, 새 품종으로 재배하세요!**
 - 수량 많은 차조 '삼다찰', 밥맛 좋은 기장 '이백찰' 소개
- ▶ **오염도 크게 줄인 버섯 캡슐종균 개발**
 - 버섯종균 및 수출입 대응 GSP사업 첫 결실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 ▶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 ▶ 나주 고병원성 AI 발생 4개 농장, 사육재개 위한 입식시험 추진
- ▶ 설 성수기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 ▶ 배추 출하자 '유통명령제 도입' 기대 확산
- ▶ 나주시, 4월부터 '벼농가 월급제' 시행
- ▶ '15년 이모작 봄파종 확대로 곡물 자급율 1.2%P 높인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한계 초과시 대응할 계획
- ▶ 러시아, 2015/16년 곡물수출 20-30백만 톤 계획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은 2년래 최대 에탄올재고량으로 하락했음
 - 대두 선물가격은 현물가격 강세의 파급효과, USDA의 대두재고 하향전망,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 증가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다소 제한됨

☞ 고소득 농업사례(전남농업기술원)

- ▶ 비바람 맞고 역경 이겨낸 화순 표고버섯

❁ 사업신청 안내 (전남도)

▶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신청

- 제출기한 : '15. 2월말까지
- 지원분야 : 시설원예, 과수, 축산
- 지원대상 : 지원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 기간/장소 : '15. 2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품목 : 사과, 배 등
- 지원한도 : 700백만원 이내/개소

▶ 2015년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지원 신청

- 기간/장소 : 2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품목 : 3개(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지원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 140kg, 호밀 160kg
- 지원자격 : 유희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1. 1. ~ 2. 28./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지원내용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용자 30%, 자부담 40%
- 지원규모 : 2022년 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2. 1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2/16)	전주 (2/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1,400	41,400	41,400	43,600	40,493	↓ 5.0	↑ 2.2
	콩(백태)	35kg	140,000	140,000	139,000	143,600	182,533	↓ 2.5	↓ 23.3
	고구마(밤)	10kg	23,400	22,800	22,600	19,550	26,383	↑ 19.7	↓ 11.3
	감자(수미)	20kg	29,600	27,600	23,120	19,700	31,683	↑ 50.3	↓ 6.6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440	400	380	410	845	↑ 7.3	↓ 47.9
	양배추	10kg	6,200	5,200	5,000	4,100	7,507	↑ 51.2	↓ 17.4
	오이(다다기계통)	15kg	65,000	70,000	58,267	75,750	68,400	↓ 14.2	↓ 5.0
	애호박	8kg	37,400	38,400	26,440	29,650	29,907	↑ 26.1	↑ 25.1
	토마토	10kg	28,800	30,600	27,040	37,400	34,520	↓ 23.0	↓ 16.6
	무(월동)	1kg	530	450	434	414	-	↑ 28.0	-
	당근	20kg	19,400	17,400	16,120	19,050	23,547	↑ 1.8	↓ 17.6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0,000	817,333	↑ 24.2	↑ 0.3
	풋고추	10kg	115,000	104,000	46,640	84,750	83,077	↑ 35.7	↑ 38.4
	마늘(난지)	10kg	34,600	34,600	34,200	27,800	34,813	↑ 24.5	↓ 0.6
	양파	1kg	540	530	520	780	953	↓ 30.8	↓ 43.3
	대파	1kg	1,480	1,400	1,200	1,324	1,953	↑ 11.8	↓ 24.2
	파프리카	5kg	31,800	36,000	30,800	30,800	37,163	↑ 3.2	↓ 14.4
	방울토마토	5kg	17,400	19,800	16,320	24,300	21,927	↓ 28.4	↓ 20.6
딸기	1kg	13,400	11,800	11,960	11,450	10,727	↑ 17.0	↑ 24.9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3,000	61,600	55,400	87,300	79,350	↓ 27.8	↓ 20.6
	배(신고)	15kg	36,400	35,800	35,520	46,500	46,760	↓ 21.7	↓ 22.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2/09)	전주 (2/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2,000	534,000	564,667	↓ 1.1	↓ 6.5
	들깨	45kg	430,000	430,000	430,000	436,000	371,600	↓ 1.4	↑ 15.7
	새송이버섯	2kg	11,400	9,800	7,800	10,000	-	↑ 14.0	-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38	6,533	6,501	6,272	6,342	↑ 5.8	↑ 4.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77	1,850	1,894	1,650	1,589	↑ 13.8	↑ 18.1
	닭고기	1kg	4,900	4,908	5,709	5,616	5,693	↓ 12.7	↓ 13.9
	계란(특란)	10개	1,992	1,973	2,005	1,988	1,805	↑ 0.2	↑ 10.4
	우유	1리터	2,548	2,548	2,553	2,539	2,258	↑ 0.4	↑ 1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2. 16.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460 천원	4,574 천원	4,233 천원	↓ 2.5	↑ 5.4
	거세	5,396 "	5,301 "	5,111 "	↑ 1.8	↑ 5.6
송아지 (6~7월)	암	1,922 "	1,850 "	1,627 "	↑ 3.9	↑ 18.1
	수	2,398 "	2,191 "	2,215 "	↑ 9.4	↑ 8.3
육우(600Kg)		3,795 "	3,464 "	2,451 "	↑ 9.6	↑ 54.8
젖소수송아지(7일령)		42 "	39 "	13 "	↑ 7.7	↑ 223.1
돼지(110kg)		385 "	364 "	302 "	↑ 5.8	↑ 27.5
육계(원/kg)		1,835 원	1,639 원	1,473 원	↑ 12.0	↑ 24.6
계란(원/특란10개)		1,407 원	1,364 원	1,299 원	↑ 3.2	↑ 8.3
오리(원/kg)		2,166 원	2,166 원	2,000 원	-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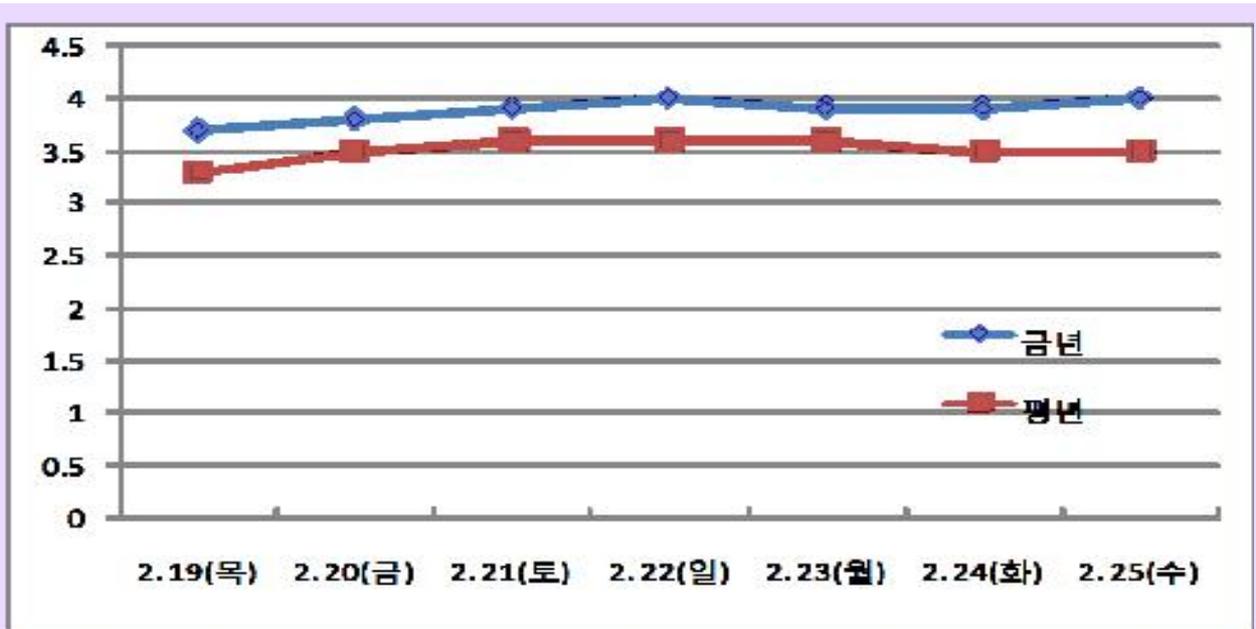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3.9	3.2	0.7	8.4	8.2	0.2	0.0	-0.5	1.1	1.8
2. 19(목)	3.7	3.3	0.7	9	8.3	-1.0	-1	-0.2	1.3	1.8
2. 20(금)	3.8	3.5	0.6	11	8.5	-1.2	1	-0.2	1.4	1.9
2. 21(토)	3.9	3.6	0.7	11	8.6	1.7	3	-0.1	-0.6	2.3
2. 22(일)	4.0	3.6	0.8	11	8.5	1.6	6	-0.2	1.5	2.1
2. 23(월)	3.9	3.6	0.7	10	8.5	-0.2	3	-0.1	2.4	2.5
2. 24(화)	3.9	3.5	0.7	8	8.4	-0.1	2	-0.1	1.3	2.4
2. 25(수)	4.0	3.5	0.8	8	8.3	0.8	2	-0.1	0.3	2.2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산물 수급 동향

배추 · 무 수급 및 가격 전망

□ 최근 배추 가격 및 출하 동향

- 1.30일까지 배추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3,943원/10kg)과 평년(6,096원/10kg) 동기 대비 각각 26%, 52% 낮은 2,900원/10kg
 - 겨울배추 산지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고 최근 지속되는 소비부진으로 가격 약세 지속
- 2월 겨울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 및 단수 증가로 물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4% 내외 증가 전망
 - 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지역 출하는 전체 면적의 50% 내외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월 작황은 겨울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황이 좋았던 작년보다 양호한 수준
- 정부는 겨울배추 물량 과잉에 따라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월 하순에 겨울배추 4만 톤을 시장격리 하였음.
- 겨울배추 저장량은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부진 등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호남, 영남 지역 겨울배추 표본저장업체 조사결과, 겨울배추 저장량은 작년보다 5~10%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저장입고 완료시기가 2월 상순~중순이어서 저장이 완료된 이후 추가조사 필요
 - 시설봄배추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배추 저장량은 변동가능성 존재

□ **향후 겨울배추 가격 전망 및 시설봄배추 재배의향 면적**

- 2월 가격은 산지 출하대기물량이 많아 가격이 낮았던 작년 동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2월 가격은 겨울배추 산지 출하량이 많고 소비 부진이 예상되어 가격이 낮았던 작년(3,181원/10kg, 상품)과 비슷한 2,500~3,500원 수준으로 전망
 - 그러나 겨울배추 저장입고량에 따라 2월 가격은 변동가능성 존재
- 시설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육묘업체 및 모니터 조사결과, 시설 봄배추 재배의향은 작년 시설봄배추 출하기 및 금년 정식기 가격이 낮아 작년보다 20% 내외 감소한 450ha 수준 전망
 - 2월 상순이 주 정식시기이며, 대체작목으로는 풋고추, 방울토마토 등으로 나타남.
- 시설봄배추 주산지인 전남 나주, 충남 예산지역 포전거래는 작년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거래된 포전가격은 평당 7,000~8,000원 내외로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봄배추 포전거래 비중은 시세 약세로 인해 작년의 20~30% 수준

□ **최근 무 가격 및 출하 동향**

- 1.30일까지 무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8kg당 작년(5,059원)과 평년(6,812원) 동기 대비 각각 46%, 9% 높은 7,407원
 - 월동무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가격 상승
- 2월 월동무 출하면적은 재배면적 감소와 종자피해포전 산지폐기 등으로 작년 대비 15% 내외 감소 전망
 -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 전년 대비 8% 감소, 종자피해포전(백무) 산지폐기(300~400ha, 재배면적의 7~8% 추정) 결정으로 출하면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2월 월동무 단수는 기상여건이 좋아 작년과 평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 겨울철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월동무 생육이 양화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무 가격 전망 및 시설봄무 재배의향

- 2월 가격은 산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2월 가격은 산지 출하량 감소로 작년(5,522원/18kg, 상품)과 평년(8,156원/18kg, 상품)보다 높은 8,000~9,000원 수준으로 전망
- 시설봄무 재배의향은 종자업체 및 모니터 조사결과, 작년 시설봄무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시설봄무 포전거래는 작년과 평년에 비해 거의 미미한 수준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 1. 30.)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식량작물 : 쌀, 감자

- (쌀) 2월 가격 20kg에 41,400원
 - 수입쌀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산 가격이 내림세에 거래
- (감 자) 2월 가격 20kg에 29,600원
 - 가공품 물량 확보경쟁으로 출하지역과 반입량이 원활하지 못해 오름세에 거래

과 채 : 오이, 풋고추, 방울토마토

- (오 이) 2월 가격 15kg에 65,000원
 - 설을 앞두고 요식업소 등의 매기가 둔화, 높은 가격대 형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내림세 형성
- (풋고추) 2월 가격 10kg에 115,000원
 -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방울토마토) 2월 가격 5kg에 17,400원
 - 사과, 배 등 제수용 과일과 딸기 등 제철 과일 소비가 집중되면서 내림세 형성

과 일 : 배

- (배) 2월 가격 15kg에 36,400원
 - 설 제수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14년산 작황호조로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되어 보합세 전망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5.1월, 농식품 수출 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 베트남으로 심비디움 본격 수출, 중국으로 막걸리 수출 증가세 -

□ 한·베트남 FTA 계기, 베트남에 국산 “심비디움” 본격 진출

※ 심비디움 수출액(2,384천불,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 중국 2,289(14%↑), 베트남 78(순증)

○ 그간 베트남은 중국산 심비디움을 주로 수입해 왔으나, '14.12월 한·베트남 FTA를 계기로 한국산 심비디움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면서, 대동농협(수출선도조직 “K-FLOWER”) 심비디움이 베트남에 본격 수출하게 되었다.

○ 또한, 심비디움은 중국 춘절 수요로 對중국 수출도 증가했다.
- 정부는 사전등록제 등 중국의 검역 강화에 대응, ‘한국산 심비디움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제정(검역본부 고시, '15.1.21일)·시행하고 있다.

□ 對 중국·베트남으로의 “막걸리” 수출 증가세

※ 막걸리 수출액(1,265천불, 전년 동기대비 5% 증가)
- 일본 630(△28%), 중국 253(187%↑), 미국 169(95%↑), 베트남 53(126%↑)

○ 중국은 최근 낮은 도수의 주류소비 증가 추세에 더불어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웰빙주로 인식되고 있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對중국 막걸리 수출 추세 : ('12) 1,418천불 → ('13) 1,478 → ('14) 1,991

- 베트남도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주류 취급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막걸리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 식품업계의 신규제품 출시로 “라면” 수출 증가세

※ 라면 수출액(17,602천불,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

- 중국 3,104(12%↑), 미국 2,193(17%↑), 홍콩 1,072(55%↑), 베트남 404(16%↑), 인도네시아 176(21%↑)

- 식품업계가 불닭 볶음면, 치즈라면 등 신규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우리 라면에 대한 현지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다.
-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라면의 세련된 포장디자인 등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 “딸기·배·유자차” 등 신선 농식품 수출 증가

- (딸기) 홍콩에서 미국·일본산 대비 가격·품질에서 만족도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딸기 수출액(6,725천불, 전년 동기대비 1% 증가)

- 홍콩 2,804(17%↑), 싱가포르 2,383(△1%), 말레이시아 659(△3%), 인도네시아 90(22%↑)

- 또한, 농진청이 주로 내수용으로 소비되었던 국산 딸기 품종 ‘설향’에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홍콩에 선박으로 수출하면서 3배 정도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 ‘설향’ 품종은 주요 수출품종인 ‘매향’에 비해 더 쉽게 물러지는 단점이 있으나, 70% 정도 익은 ‘설향’을 수출용 밀폐용기에 넣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25~30%가 되도록 처리해 3시간 동안 유지한 후 수출을 하면 경도가 증가

- (배)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 추세이다.

* 미국 배 시장 점유율: 한국산(13년: 21.5%→ 14년: 24.7), 중국산(13년: 14.6%→ 14년 : 11.4)

※ 배 수출액(8,281천불,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
 - 대만 5,146(7%↑), 미국 2,338(20%↑), 베트남 229(742%↑), 홍콩 122(33%↑)

- (유자차) 중국 춘절 특수로 선물용 패키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유자차 수출액(4,250천불,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
 - 중국 2,274(84%↑), 홍콩 599(25%↑), 대만 456(79%↑)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광우병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중단

-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2월 13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앞서,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2월 11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 주의 다 큰 고기용 소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을 확인 하였음과 해당 동물의 사체는 식품이나 사료체인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통보해 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곡성 딸기 "수출 길 열었다"

- 딸기는 과피가 얇고 약해서 쉽게 짓무러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런데 곡성의 한 생산자단체가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3백 그램 남짓의 소포장 4개가 한 묶음 포장 상자에는 생산자 단체 브랜드와 유명 다국적 기업 상표가 함께 표시돼있습니다.
-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원예 작물인 딸기, 하지만 한정된 시장을 놓고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수출이 반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 맛과 향이 뛰어나고 수확량도 많지만 오랜 운송 기간을 거치면 쉽게 짓물러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설향 딸기, 이 생산자 단체는 철저한 공동 선별과 '이산화염소 처리'라는 신기술 채택을 통해 딸기 수출의 걸림돌을 없앴습니다.
- 올해 딸기 30톤, 5억원 어치를 비행기에 실어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예정인데 선박을 이용한 중국 수출이 중장기 목표입니다.
- 재배보다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계가 절박 감 속에 수출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 출처 : 광주mbc

■ 태국, 우리 딸기에 폭 빠졌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태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Central Food Retail* 80개 매장에서 한국 딸기 소비 촉진 판촉행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Central Food Retail Co.,Ltd : 태국 최대 유통업체 Central Group of Companies의 소매업 분야 자회사로 태국내 216개 점포 보유('13년 총 매출액 8억불)

○ 태국 전역 에서 한국 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가 개최되고, 발렌타인데이 선물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급 포장된 딸기 상품도 선보인다.

□ 딸기는 시설 재배가 가능한 고소득 작물로 우리 신선농축산물 중 수출 실적이 8위에 달하는 수출전략품목이다.

○ 태국은 우리나라 딸기 수출국 중 수출액 기준 4위에 해당하는 나라로, 태국내 한국 딸기의 시장 점유율은 22.5%로 미국 (3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 타국산 딸기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도 훨씬 높다는 것이 태국 현지인들의 반응이어서 태국의 딸기 수출은 전망이 밝다.

□ 또한 2월 12일 Central Food Retail 매장(Central World점)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한국 딸기로 만든 케이크 시식행사 등을 개최한다.

□ 농식품부는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딸기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 국가들을 타겟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쌀 가공식품 수출 크게 늘린다

- 농식품부, 올해 수출액 7500만달러 목표 -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화 첫해인 올해 쌀과 쌀 가공식품의 수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쌀과자·곡물가공품·쌀음료·전통주 등 쌀 가공식품의 올해 수출목표를 750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6097만4000달러(3만4057t)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2018년까지는 1억5000만달러 상당의 쌀 가공식품을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쌀 수출도 지난해의 471만5000달러(1992t)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수출용 원료 벼 재배 단지를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에 200ha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대호간척지 수출단지 면적을 540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에는 경기 화성 화옹7공구에 500ha, 2018년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1·4공구에 508ha를 수출용 벼 재배단지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8년에는 총 1548ha의 수출용벼재배단지가 조성된다.
- 이러한 움직임은 쌀 소비가 해마다 줄고 관세화로 수출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밥쌀과 쌀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를 통해 쌀 수요기반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3년 대비 3.1% 줄어든 65.1kg으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 농식품부는 이달 27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호간척지 수출용 원료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쌀 수출 추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양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쌀 수출추천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6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3월부터 쌀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출처 : 농민신문('15. 2. 13)

■ 농협 “올 농식품 수출 목표 4500억”

- 홍삼·유자차·김 등 수출시설 추가 건립 -
- 농협이 올해 수출목표로 4억2000만달러, 우리나라돈으로 4500억 원을 설정했다. 농협은 지난해 역사상 최고인 3억35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농협은 이를위해 지난 10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수출전략을 제시했다.
- 우선 가공식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농협의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다. 농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홍삼·유자차·선식·김치 김 등 가공식품의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유자차는 고흥 두원농협에 수출전용시설을 추가 설립하고 김은 충남 홍성군 광천농협에 수출용 김생산 시설을 신규로 설립한다. 또 선식의 미국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한식요리대회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화권 공략도 본격화한다. 홍삼의 경우 지난해 개설한 중국 산둥성내 농협홍삼 안테나샵을 활용해 테스트 마케팅을 추진하고 농협홍삼 단일브랜드 홍보 및 수출확대, 수삼류 시범수출 등 중

화권내 수출 1위 브랜드 쟁취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T-MALL내 한국관 입점을 추진하고 현지 홈쇼핑에 유자차 선물세트를 런칭하는 등 마케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 아울러 농협은 전통적 주력시장인 대일본 수출확대를 위해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엔저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에는 손실보전 수단을 동원해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출처 : 광주일보('15. 2. 12)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수량 많고 쌀국수 만들기 좋은 전용 벼품종 나왔다

- 수량 10a당 708kg 초다수성...2016년 농가 보급 계획 -

농촌진흥청은 수량 많고 쌀국수 만들기 좋은 벼 새품종 '새미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미면'은 쌀국수 전용 품종 중에 가장 수량이 많은 10a당 708kg으로 국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밀로스 함량도 높아 쌀면 제조에 적합하다. 이삭패는 시기는 8월 12일경이고, 벼 키는 81cm로 약간 큰 편이나 줄기가 곧게 뻗고 단단하여 쓰러짐에 강하다.

또한 우리나라 벼 재배시 문제가 되고 있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내냉성에는 약한 편이므로 적기 모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계열 제초제 살포 시 약해가 발생하므로 제초제 선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새미면'은 올해부터 전용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2016년부터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 종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월동기 이후 마늘·양파 관리 기술

- 서릿발 피해 예방, 잡초제거, 웃거름 주기 등 적기 관리 필요 -

농촌진흥청은 마늘·양파 월동기 이후 재배포장 관리와 서릿발 피해 예방, 웃거름 주기,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 등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서릿발 피해는 전년도에 정식이 늦었거나,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포장에서 토양이 얼었다가 녹을 때 발생한다. 포장을 세심히 관찰하여 솟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는 즉시 땅을 잘 눌러 주고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덮기를 실시한다.

웃거름은 지역별로 생육 상황 및 포장 조건에 따라 알맞은 양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고품비료를 직접 살포해 주는 대신 물에 녹여 물 비료를 만들어 주면 비료의 손실도 줄고 효과도 높아진다. 토양이 습할 때는 물 200L, 건조할 때는 400L 이상에 충분히 녹인 후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한다.

잡초는 주요 활동 부위가 땅속 10~15cm로 제때 뽑아 주지 않으면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저장성도 영향을 미친다. 잡초는 이른 시기에 없애 주도록 하고 작업할 때에는 뿌리나 잎이 상처 나지 않도록 한다.

무공비닐로 멀칭 했을 경우 짝을 비닐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지형 마늘은 짝이 20cm 이상일 때 꺼내면 마늘 짝이 상처를 받기 쉽고 작업도 불편하므로, 10~15cm 정도 일 때 유인해 주어야 효과적이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포장은 뿌리 활력이 떨어져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으므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고자리파리, 노균병, 뿌리응애 등 병해충도 제때에 방제해 주어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몸에 좋은 잡곡, 새 품종으로 재배하세요!

- 수량 많은 차조 ‘삼다찰’, 밥맛 좋은 기장 ‘이백찰’ 소개 -

농촌진흥청은 올해 잡곡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에 수량 많은 차조 ‘삼다찰’, 밥맛 좋은 기장 ‘이백찰’을 소개했다.

2011년 개발된 차조 ‘삼다찰’은 제주의 토종자원에서 선발·육성된 청차조로 칼슘(100g당 7.5 mg)과 식이섬유(7% 이상) 함량이 높다. 수량은 10a당 451kg으로 기존 재배종인 ‘황금메조’에 비해 약 24% 많다. 또한, 줄기가 곧게 서는 직립초형으로 기계화 재배에도 유리하다.

같은 해 개발된 기장 ‘이백찰’은 찰성이 좋아 혼반용으로 알맞다. 수량은 10a당 277kg으로 기존 재배종인 ‘황금기장’ 보다 27% 많다. 쓰러짐에 강하고 늦심기 해도 품질이 좋아 이모작 재배에 적합하다.

농가에서 조 ‘삼다찰’과 기장 ‘이백찰’을 흠어뿌림으로 재배할 경우 종자량은 조 1 kg/10a, 기장 1.5 kg/10a으로 하고, 비료는 밑거름으로 주는 것이 좋다.

‘삼다찰’과 ‘이백찰’ 종자는 각각 3.2톤과 2.0톤이 생산되어 보급 중이며, 종자 구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사업팀(031-8012-7282) 으로, 품종에 대한 특성과 재배방법은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055-350-1225)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오염률 크게 줄인 버섯 캡슐종균 개발

- 버섯종균 및 수출입 대응 GSP 사업 첫 결실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버섯종균 및 수출입 대응을 위해 오염률을 현저히 줄인 '캡슐종균'을 개발하고 도내 버섯 재배농가의 활용을 당부했다.

버섯 캡슐종균은 도 농기원과 한국농수산대학(서건식 교수), 중도버섯연구소(이재찬 대표) 등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된 골든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버섯재배에서 종균이란 일반농사에서 종자와 같은 것으로, 기존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형종균을 20년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데 성형종균의 생산 공정과 유통과정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오염이 쉽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캡슐종균은 톱밥을 부직포로 싸고 마개부분을 비닐로 압착해 캡슐 형태로 만든 것으로, 살균, 접종, 배양, 유통이 한 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염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순수한 버섯균만을 배양할 수 있다.

특히 버섯 캡슐종균은 기존의 성형종균 제조과정에 필요한 15~20일간의 후배양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균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오염률을 기존 종균 대비 1~2% 미만으로 대폭 감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 축협 등 대리점 방문시 국비·지방비 제외한 농가자부담만 납부 등 지원절차 간소화,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방식으로 전국 통일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였다고 밝혔다.

○ 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 한도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 등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편의를 높였다.

□ 이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하였다.

□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총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 20~40%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30%이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기타가축(사슴·양·벌·토끼·오소리)이 해당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나주 고병원성 AI 발생 4개농장, 사육재개 위한
입식시험 추진

- 시험용 닭 입식하여 바이러스 잔존 여부 철저 검사 -

-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나주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하여 2. 12일부터 시험용 닭을 입식하여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식시험은 지난해 9월 24일 영암군 AI 발생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나주(남평읍, 산포면, 노안면) 4개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참고로 최근(1. 27일) 발생한 나주 세지 발생농장과는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방역대 외 지역이다.
- 이번 대상농장은 살처분·소독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지 30일이 지나고 축사별 분변검사를 2차례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바이러스에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산란계 6~12주령)을 3주간 시험 입식하여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 입식시험을 위해서는 축사내외, 진입로, 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건강한 닭을 비 발생지역에서 구하여 입식시험을 하게 된다.
- 축산위생사업소에서는 1차로 2월 12일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닭(산란계) 175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축사당 5마리씩 시험 입식하게 된다. 또한 3주간의 입식시험 기간 동안 2일 간격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2차로 입식종료 즉시(3주후) 시험축 175마리에 대한 혈청·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입식시험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 전남도, 설 성수기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 육류 도축·미생물검사 등 안전성검사 철저 -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설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장 식육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유통 중인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 소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을 맞아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도축장 18곳의 도축·가공 단계별 작업 공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검사관(가금류 도축장은 책임수의사)을 통해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운영 및 자체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해 매일 점검키로 했다. 또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한다.
- 도축장 출하 가축의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식육 판매업소와 대형 축산물 판매장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한우고기 둔갑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배추 출하자 ‘유통명령제 도입’ 기대 확산

- 가격 변동 줄고 수급안정에 기여...“객관적인 가격기준·명령준수 유인책 마련해야” -
- 정부가 감귤에 이어 배추 품목에도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산지 출하자를 중심으로 수급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유통조절명령제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의 요청시 정부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수급조절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무임승차자 문제 등을 해결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특히 배추 품목은 작형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될 경우 수급안정과 함께 가격변동을 줄여줄 수 있을 전망이다.
- 다만 배추 유통조절명령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에 앞서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출하자들과 유통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배추 출하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조절명령을 하려면 가격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배추 수급조절 매뉴얼은 가격하락 단계에 대한 기준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수급조절 매뉴얼상의 기준 가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든지, 아니면 유통조절명령과 관련된 새로운 가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또 유통조절명령시 출하자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산지유통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령 배추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발동돼 중·하품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출하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자발적으로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출하제한을 발동하면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출하자들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 일부에선 유통조절명령제가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산지에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통조절명령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동안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벌여온 수매·비축사업이나 산지폐기 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제도 시행에 앞서 산지 출하주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15. 2. 13)

◆ 나주시, 4월부터 ‘벼농가 월급제’ 시행

- 남평·마한·동강·다시농협과 협약...최대 100만원 지급

- 전남 나주시와 남평·마한·동강·다시농협 등 4개 농협은 3일 나주시청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

나주시역 벼 재배 농업인들이 올해 4월부터 월급을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수매자금을 미리 지급하게 된다. 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 참여자를 3월까지 신청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 농업인들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월급의 상·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지급해 부담이 적어 사업대상자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농민신문

◆ '15년 이모작 봄파종 확대로 곡물자금을 1.2%p 높인다

- 2.12 전북 익산에서 이모작 봄파종 시연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유휴 농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 '15년 밀·보리, 조사료 등의 이모작 봄파종을 적극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지난 가을 파종기 잦은 강우로 맥류와 조사료 파종이 저조하여 재배면적이 약 195천ha로 전년(248천ha)에 비해 크게 모자람*

에 따른 것으로 '15년 봄에 약 53천ha의 재배면적을 추가하여 맥류, 조사료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23%('13년 기준) 수준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인 바, 이번 봄파종 확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약 1.2%p의 곡물자급율* 제고가 기대된다.

□ 우리나라 자급률이 낮은 반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경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0년의 142%에서 '13년 101%까지 하락하여 왔다.

- 이는 국내 농경지에 대한 이용 여지가 아직 많이 있고, 곡물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경지를 일정 부분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 특히, 밭에 비해 영농여건이 좋은 논외의 경우 겨울철 이모작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66만ha 수준이나, '13년의 경우 약 28만ha(42.4%)*만이 이모작 재배가 이루어져 활용 여지가 있는 우량 농경지가 약 38만ha 더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저조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서는 벼 수확 이후 겨울철에 놓고 있는 논에 재배가 가능한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적극적으로 심어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봄파종은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동계작물 재배시 이모작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난해 가을 기상으로 인해 파종을 놓쳐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농가들도 이번 봄파종으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져 겨울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봄파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관심과 봄파종 기술 확산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정부는 관련 기관과 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봄파종 확산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모작 봄파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봄파종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전파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월 12일 전북 익산에서 이모작 봄파종을 시연 할 예정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한계 초과시 대응할 계획

-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흐리브나 화폐가치 급락에 따른 수출급등 발생시 국내 곡물시장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 우크라이나 정부와 상인들은 2015년 상반기동안 제분용밀 1.2백만 톤 이상을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정해진 물량 초과시에는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시즌 현재까지 약 22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으며 이는 밀 8.7백만 톤, 옥수수 9.2백만 톤, 보리 3.8백만 톤을 포함한다고 한다.

◆ 러시아, 2015/16년 곡물수출 20-30백만 톤 계획

-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2015/16년 곡물을 20-30백만 톤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5년 곡물전망은 부진한 겨울곡물 작황, 수입비용, 루블화 하락에 따른 높은 이자율로 2014년 사상최대 104백만 톤과 비교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는 2월 1일부터 밀수출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6월3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밀수출세는 소비자가격의 15%에 7.5유로가 더 추가될 것이나 톤당 가격이 35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작물생산은 85-100백만 톤의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68-100백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2. 12.(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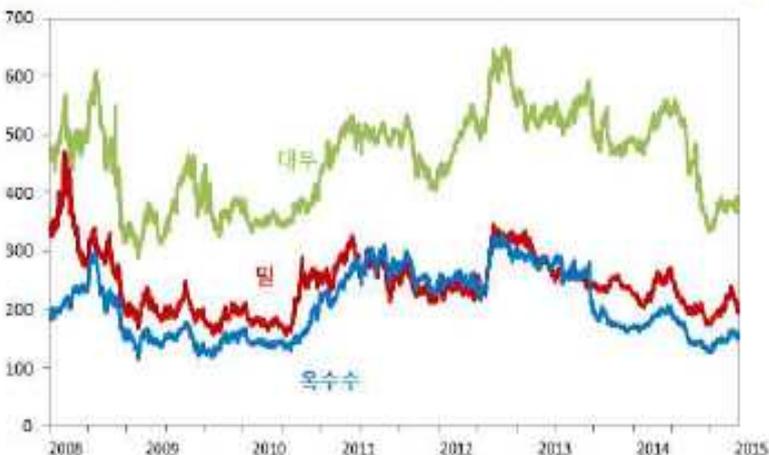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및 밀가격, 저가매수세로 반등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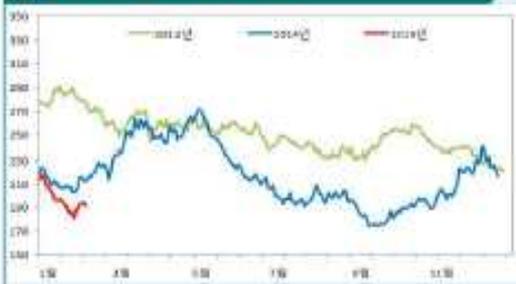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2.1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	2014 평균
밀	193.12	▲0.8%	200	216
옥수수	151.81	▼0.6%	153	164
대두	359.20	▲0.9%	368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작재면밀-3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밀(밀,옥수수,대두,3월물) 경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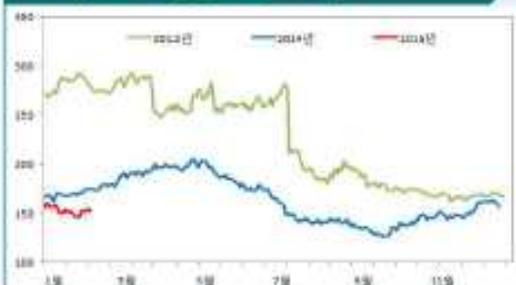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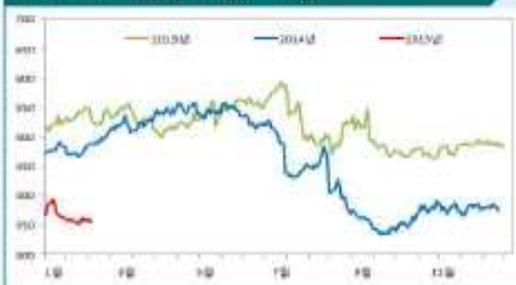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저가매수세 및 화요일 USDA보고서 발표에 따른 스프레드 거래증가로 강보합 마감했음. 한편 USDA 발표이후 포지션을 청산한 거래자들은 거래를 재개하고 있음. 하녀분 주간 수출 판매는 11-18백만 부셸로 지난주 15백만 부셸과 비슷하다고 함.

● 옥수수 선물시장 현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2년래 최대 에탄올재고량으로 하락했음. 지난주 에탄올 생산량은 283백만 갤런으로 전주대비 1.4% 상승한 수준인 반면 에탄올 가공이익은 지난 몇 주 대비 하락했음.

● 대두 선물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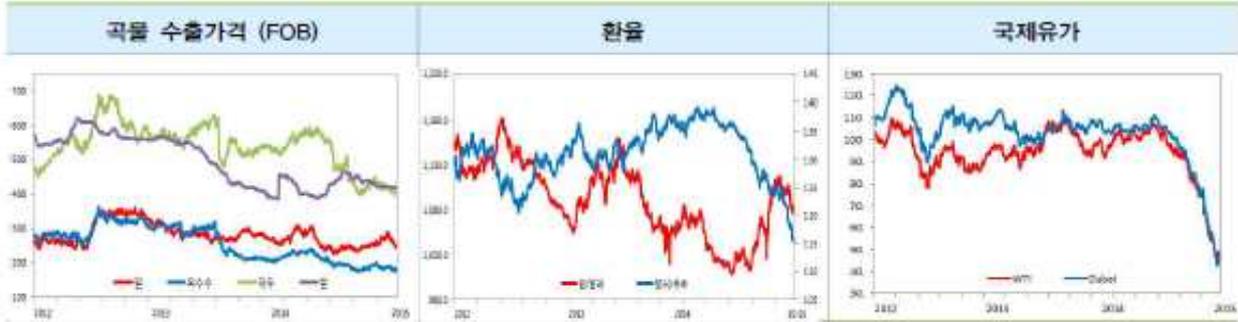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현물가격 강세의 파급효과, USDA의 대두재고 하향전망,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 증가로 상승했으나 높은 국제대두 공급전망으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음.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rain.krei.re.kr/>

09월 15일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견조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유가는 미 원유재고 증가, 주요기관 유가약세 전망 등으로 하락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42	▲0.4%	249	261	284
	옥수수	183	▲1.1%	180	205	265
	대두	396	▲0.8%	401	501	556
	쌀	417	-	418	425	488
환율	원/달러	1,091	▼0.6%	1,089	1,053	1,095
	달러/유로	1,132	▼0.1%	1,16	1,33	1,33
국제유가 (US\$/barrel)	WTI	50.02	▼5.4%	47.49	92.97	97.94
	Dubai	55.83	▲0.8%	45.77	96.64	105.3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2.9(수출가격), '15.2.11(환율), '15.2.1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회사,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방글라데시 상인들은 밀 100,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브라질 Abiove에 따르면 대두생산 전망은 다소 상승한 92.3백만 톤이라고 함.
- USDA 2014/15년 전망에 따르면 쌀 공급 및 수요전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함.
- 모로코는 특혜관세 쿼터내에서 미국산 연질밀 360,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15. 2. 12.)

8. 고소득 농업사례

■ 비바람 맞고 역경 이겨낸 화순 표고버섯

-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가장 값비싼 버섯은 송이버섯이지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송이버섯이 없어 표고버섯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 표고버섯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특산물이다. 표고버섯의 효능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많이 연구돼 왔다. 현대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증명되고 있는데 표고버섯에는 에리다데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물질이 핏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린다고 알려졌다.
- 화순 도암면 탕곡부락 산자락에 위치한 표고버섯 농장. 농장의 운영자는 표고버섯에 대해 연구한 주배식씨다. 주씨는 현재 연 매출 수억원에 달하는 '부농'계열에 합류해 한해 벌어들이는 소득만 약 8천만원에 이른다. 웬만한 대기업 연봉에 견줄만한 소득이다.
- 지난 2000년부터 표고버섯 농사에 나선 주씨는 초창기 농사일을 하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고 한다. 밤낮없이 힘들게 재배해도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커서 월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버섯을 팔 수밖에 없기도 했다.
- 주씨는 조그만한 동산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작은 단위에서 시작한 표고버섯 수는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증가했고 이어 산 전체를 표고버섯으로 물들이게 돼 버섯 농장은 약 1만㎡(3천평)까지 늘어났다.
- 이제 주씨는 마을에서 표고버섯 선구자로서 주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노후 걱정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 주씨는 “시설투자로 인해 손에 돈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며 “첫 수확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 이어 “그래도 점차 공을 들이면서 꾸준히 버섯 생산에 나서다 보니 이제는 엄청난 양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게 됐다”고 뿌듯해 했다.
- 주씨는 하우스 생산을 따로 하지 않는다. 오직 비바람을 맞고 역경을 이겨낸 버섯만이 상품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에서다.
- 실제로 인공을 길러진 버섯보다 주씨의 버섯처럼 자연상태에서 길러진 버섯들은 맛이 좋고 향이 좋아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씨는 다음달에는 2만㎡(6천평) 가까이 생산지를 늘려 더 많은 버섯을 길러낼 계획이다.
- 그리고 “농촌을 지키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 더욱 질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출처 : 무등일보

9. 사업신청 안내

◆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신청

1. 시설원에분야

- 기간/장소 : '15. 2월말까지/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시설 현대화된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원에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시설에너지 연계활용 가능농가, 수출 농가 등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에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의 온도, 풍속, 감우, 조도 등과 시설 내부의 온도, 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시설의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제어장비 및 통합 제어장비 등
 - 온실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 등
-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20백만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2. 과수분야

- 기간/장소 : '15. 2월말까지/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등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 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 표준사업비(1ha 기준) : 20백만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3. 축산분야

- 기간/장소 : '15. 2월말까지/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분야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 지원대상 : 양돈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센싱을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모든 군사급이기, 모든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돈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돈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양돈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지원한도액
 - 표준사업비(1,000두 기준) : 100백만원
 - 사업비 상한액 : 500백만원

◆ 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 기간/장소 : '15. 2월말까지/읍·면·동사무소
- 사업기간 : 1년('15.12.31까지)
- 대상품목 : 사과·배 등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총사업비 기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으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m² 이상
- 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 APC 시설에서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 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2015년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지원 신청

- 기간/장소 : '15. 1. 1. ~ 2. 28./읍·면·동사무소
- 지원품목 : 3개(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지원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 지원자격 : 유희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1. 1. ~ 2. 28./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지원내용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 임차료(용자금에 한함)
 - 냉장·냉동 판매시설(진열장), 포장시설,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
- 지원조건
 - 보조 30%, 용자 3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개소당 총 사업비 : 10억 원(보조 3억 원, 용자 3억 원)
- 지원규모 : 2022년 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

주간

전남농업정보 22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1

Fax. 061-286-4782

